

목포~광양 고속국도 교량 철구조물 추락

작업인부 3명 사망·3명 부상

곡선형 지점 직선방향 이동하다 이탈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 교량 공사 중 철 구조물 등이 무너져, 작업 중인 인부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울 들어 전남지역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량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고흥 소록도 연도교(사망 5명·부상 7명, 4월5일) ▲해남 현산면 국도 13호선(부상 5명, 5월8일) 등 3건으로, 건설현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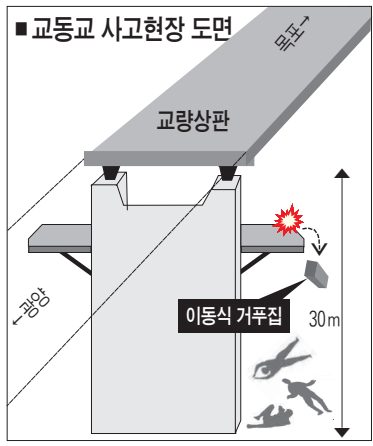
◇사고=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께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목포~목포 간 고속국도 10호선 2-2공구 '교동교'(길이 400m·폭 12.4m) 공사 현장에서 ▲길이 54m ▲가로·세로 2m ▲무게 230t의 이동식 거푸집(Movable-Scaffolding System)의 '메인 거더'(Main girder·속이 빈 철골 상자형태)가 레일에서 이탈하면서 다리 3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메인 거더'와 지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조연웅(52·순천시 용당동)씨 등 인부 6명이 추락해 조씨 등 3명이 숨지고, 방길섭(50·순천시 석현동)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원인=이동식 거푸집은 교각 사이에 설치돼 앞뒤로 50m를 이동하며 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장비. 사고는 상판 공사가 끝나고 거푸집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교량의 6번과 7번 교각 지지대 위에 설치돼 있던 '메인 거더'가 5번 교각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레일에서 이탈하면서 추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메인 거더'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 등 철구조물도 다리 밑

으로 떨어졌다. ◇경찰 조사=경찰은 17일 사고 교량에서 안전시설과 이동식 철구조물 붕괴 원인 등에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곡선형으로 굽은 곳인데도 '메인 거더'를 직선방향으로 이동하다 레일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증을 의뢰했다. 또 '메인 거더'의 방향을 직접 조작하며 공사를 감독한 하도급업체 김모(35) 과장이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 부산 모 병원에 입원



한편 따라 조사관을 파견했다. 강진경찰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특히 교량 공사가 작업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시공사(고속도로관리공단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CCL 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망자=▲조연웅(52) ▲김창선(47·해남군 해남읍)▲이점수(48·경기도 안양시)



길이 54m·무게 230t의 철골 구조물이 추락한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목포~광양 고속국도 '교동교' 건설현장에서 경찰과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사고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이 교량의 대형 철골 구조물이 30m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인부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진=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학교폭력 교장·교사가 책임져야”

대법,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학교 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

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진하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교사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화재 잇따라

17일 새벽 0시40분께 나주시 관정동 주모(31)씨의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 닭 12만5천여 마리와 비닐하우스 4동이 불에 타 1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다.

앞서 16일 새벽 5시30분께는 광주시 북구 월출동 1베터리 공장 제품 실험실에서 불이 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 실험기와 실험실 내부 10㎡가 전소, 9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중형기자 golee@

아파트 승강기 오작동 초등학교 45분간 갇혀

무리한 이삿짐 영항

무거운 이삿짐 등을 엘리베이터로 자주 옮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지난 16일 오후 7시19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K 아파트 103동. 이 아파트에 사는 최모(11·H초교 5학년)군은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 속에 갇혔다. 승강기가 멈춰선 곳은 9층과 10층 사이로,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비상벨을 누르고 '구해달라고'고 소리쳤지만 기술자와 경비원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군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45분 만에 구조됐다. 사고 당시 경비원은 CCTV를 보고 있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의 어머니(35)는 “경비실에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폰 연결도 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고의 원인은 승강기 전동기·로프 등을 제어해 주는 컴퓨터 제어반(Control Panel)의 스위치 오작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월 말부터 입주자 시작된 이후 이삿짐 센터 등이 냉장고·세탁기 등 무거운 물건을 승강기(정원 15명·적재하중 1천kg)에 싣고 옮기면서 컴퓨터 제어반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체 642세대 중 현재 280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한편 올 현재 광주·전남에 설치된 승강기는 2만여 대. 지난해 연 5건의 사고가 발생, 5명이 중상을 입었다. 2000~2005년엔 7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중형 기자 golee@

니원침 (7238) 김종두



농협·사채업자 짜고 '쌀깡'

쌀 판매 가장 카드 결제... 현금 만들고 이자 챙겨

농협과 사채업자가 짜고 쌀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광주·전남지역 농협지점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사채업자와 짜고 수익 원대의 속칭 '쌀깡'을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농협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산이자를 빼고 현금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협은 사채업자에 신용카드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으며, 사채업자에게 건넨 쌀은 시세보다 싸게 도·소매업자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농협지점 1곳에서만 최근 1~2년 사이 9억 원의 '쌀깡'이 이뤄졌으며, 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도 '쌀깡'에 동원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농협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쌀값 하락을 불러오는 '쌀깡'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쌀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실거래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 해상 어선 좌초 선원 8명 구조

17일 오전 6시24분께 신안군 팔금면 고산리 하남덕도 서쪽 0.9km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입항하던 인천 선적 방어잡이 어선 688급 '2003 신성호'(선장 정철수·43)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신호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한 후, 선박 연료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료밸브 등을 막았다. '신성호'가 좌초돼 있던 '여'(밀물 때 보이지 않다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는 밀물 때 수심 0.3~1m 아래에 잠기는 암초다. /목포=이성형기자 lsh@kwangju.co.kr

출소 후 숨겨둔 장물 팔다 또 '달미'

○농촌 빈집을 돌며 훔쳐온 장물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20대가 출소 이후 이를 금은방 등에 팔아 오다 경찰에 달미.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영광군 흥농읍 장모(여·64)씨의 집에 침입,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시가 2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노모(29·강진군)씨를 붙잡아 조사 중.

○노씨는 지난 2003년 8월 빈집 달이를 하다 붙잡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5년 출소, 고향인근 야산에 숨겨두었던 장물을 7회에 걸쳐 금은방에 내다팔았다가 경찰의 추적이 꼬리가 잡힌 것.

○담양 경찰은 “노씨가 금반지 등을 자주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절도 행각까지 자백 받았다”고 설명.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gukgyeong' English education. Features a group of students holding letters A, B, C, D. Text includes '영어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교총', '한교전화영어', and contact information: 1588-8010, www.waw05.com.

Advertisement for 'Modish Gallery' furniture sale. Features images of various furniture sets. Text includes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0621252-3001-2, 0621350-8764.